

## 대학 편입에 성공하려면



미국에서 대학 편입을 하는 것은 한국의 대학 편입과 비교해 많이 수월하다. 한국처럼 편입 시험을 볼 필요도 없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서류에 적힌 기록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편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주립대학들은 물론 아이비리그 같은 사립대학에서도 편입생을 받아들인다.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려는 학생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 놓여있다.

- ▶ 수업을 도저히 따라기지 못하는 경우.
- 1, 2학년 학점이 C, D라면 대학을 옮겨야 한다. 자칫 더 떨어지면 학사 경고나 제적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다.

▶ 현재 대학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로 옮기려는 경우

편입을 희망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런 길을 택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캘리포니아주의 명문 학부중심대학인 옥시덴털 칼리지(CC)가 아닌 명문 리버럴 아츠 칼리지(UC)에서 아이비리그 가운데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으로 3학년 때 편입을 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편입을 원한다.

▶ 학비를 감당하지 못 해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

아무리 명문 대학에 다니더라도 학비를 감당할 수 없으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다. 재학 중인 대학에서 재정보조

를 받더라도 그 액수가 충분하지 못하면 학비 보조를 충분히 해 준다는 학교로 편입할 수밖에 없다.

전체 미국 대학생들의 1/3이 입학 대학과 졸업 대학이 다르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편입을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편입을 위해서는 그 준비가 빨라야 한다. 보통 1학년 입학을 하자마자 곧바로 편입 준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다. 특히 전공 선택을 할 경우 선수 과목 이수 조건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다니는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으며 학점이 어떻게 되는 가가 편입 성공의 관건이다.

편입의 시기는 보통 2, 3학년이다. 대부분 2년을 수료하고 옮기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마치 신입생처럼 9학년 성적에서부터 모든 학교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3학년으로 옮길 경우 동일 전공으로 옮겨야 한다. 즉 전공을 바꾸려면 2학년으로 옮기거나 학년을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동일 전공으로 옮기더라도 이수한 과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성공적인 편입을 위해서는 또 1) 스펙 정리하기 2) 전공과 학점,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표 대학 선정하기 3) 해당 대학에 지원하기의 과정을 충실히 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편입을 검토해 충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 얼리에서 디퍼 받았다면 레귤러에 올인하라

대학들의 2023학년도 얼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좋은 결과를 받은 학생들도 있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불합격 통보를 받는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 가운데는 결과에 순응하지 못하고 레귤러 지원에 소홀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러다가는 레귤러에서 마지막 탈락하는 고통을 받게 될지 모른다. 특히 얼리에서 디퍼를 받은 학생들은 결과에 못내 아쉬워하며 레귤러 지원에 소홀할 수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MIT대학은 아주 친절하게 안내한다. “MIT를 잊고 다른 대학 지원에 몰두하라”고.

디퍼는 자동으로 레귤러로 넘어가서 다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얼리 디시전으로 얼리를 넣었는데 디퍼가 됐다. 그런데 레귤러에 합격이 됐다면 ‘바인딩’이 풀린다. 즉 등록 의무가 없어진다.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했던 대학에서 디퍼가 됐다가 레귤러에 합격됐더라도 등록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얼리 결과가 실망스럽다면 얼리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꼼꼼하게 다시 점검해 레귤러 대학 리스트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얼리 실패의 그 원인은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 1) 원서 작성에 문제가 없었나? 꼼꼼하게 쓰지 못하고 서툴게 쓴 것들이 있는지?
- 2) 에세이는 정말 최선을 다해 잘 썼는가?
- 3) Additional Information 등 자신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나?
- 4) 해당 대학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정보조를 요청했나?
- 5) 액티비티가 부족했거나 이를 잘 정리해 보여주는데 소홀했나?



6) 근원적으로 학생의 능력보다 높은 대학에 지원을 했나?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능력보다 높은 대학만을 쓴 경우이다. 재정보조를 달라고 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을 높여서 지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많은 부분이 학생의 능력이 합격에 미달되는데 돈을 달라고 한 경우다.

일부 학생들은 가정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쓴 경우 떨어진다. 일부 대학들은 학부모에게 ‘좀 더 분담금을 올려라’고 요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대학들은 일방적으로 불합격을 통보한다.

얼리 디시전에 재정보조를 달라고 지원을 해서 디퍼가 됐고, 레귤러에 합격이 됐다면 기대만큼의 재정보조를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등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정보조를 더 많이 주는 다른 대학에 등록을 하면 문제가 없다.

결론은 디퍼를 잊고 레귤러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shutterstock

###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설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낸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499	\$274

####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2년 현재 170.1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설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719	\$2,309
Asset Limit	\$15,510	\$30,950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 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